


 오늘의
게시판

트러스트 무용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춤 나들이

오후 4시 섬진강 청소년수련장 야외무대

행사 <30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 위원회=서구청 상황실.

▲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오후 3시 광주시 남구청 회의실.

<31일>
 ▲백운광장 교통대책 수립 용역 공청회=오후 2시 광주시 남구청 회의실.

▲제 52회 황토골 차지마당=오후 4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김동신(주)솔로몬 기업전략 연구소 소장이 '우리 농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광주·전남 지역혁신대회=개회식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오후 2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세미나. 이명규 광주대 교수가 '도시재생', 오미란 농어촌특별위원회 간사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대해 주제 발표.

▲진도 신비의 바닷길 보호 학술용역 중간보고 회=오후 2시 진도군청 상황실. 전남대 해양연구소 차성식 교수 등이 변화된 해수유동이 진도 바닷길에 미치는 영향, 가계 해수욕장 모래 유실 현황 파악 및 복구 방안 등을 대해 보고.

▲포스코 마그네슘 판매공장 착공식=오전 10시 30분 순천시 해룡면 임대산단.

▲트러스트 무용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춤 나들이=30일(수) 오후 4시 섬진강 청소년수련장 야외무대.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 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뛰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등 공연.

▲금난새&유라시안필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30일(수)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남도소리상설무대 '컨템퍼러리 재즈'=30일(수)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풍구와 뻥붕이의 신나는 대모험'=31일(목) 오전 11시, 오후 4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일반 8천원, 단체 5천원.

▲지산갤러리 청년작가 초대 전 '박형규전'=8월 31일~9월 20일까지 지산갤러리.

▲한국화가 고봉석·천석 공동작품전=9월 3일 까지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그룹초대전 21세기 정신조각회전=9월 17일 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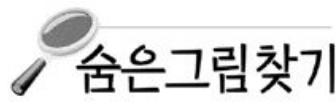
▲개점 11주년 기념전 '섬.역시문화 기행전'=9월 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북아트 페스티벌=9월 6일까지 롯데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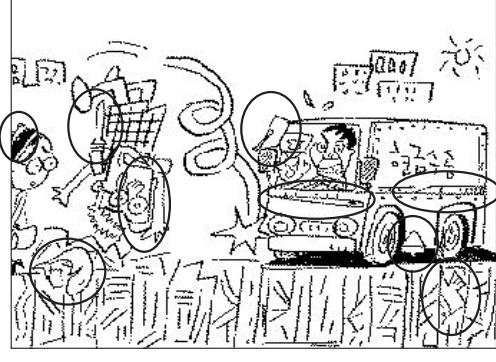
▲광주청년작가전=30일까지 메트로갤러리.



▲금난새&유라시안필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30일(수)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숨은그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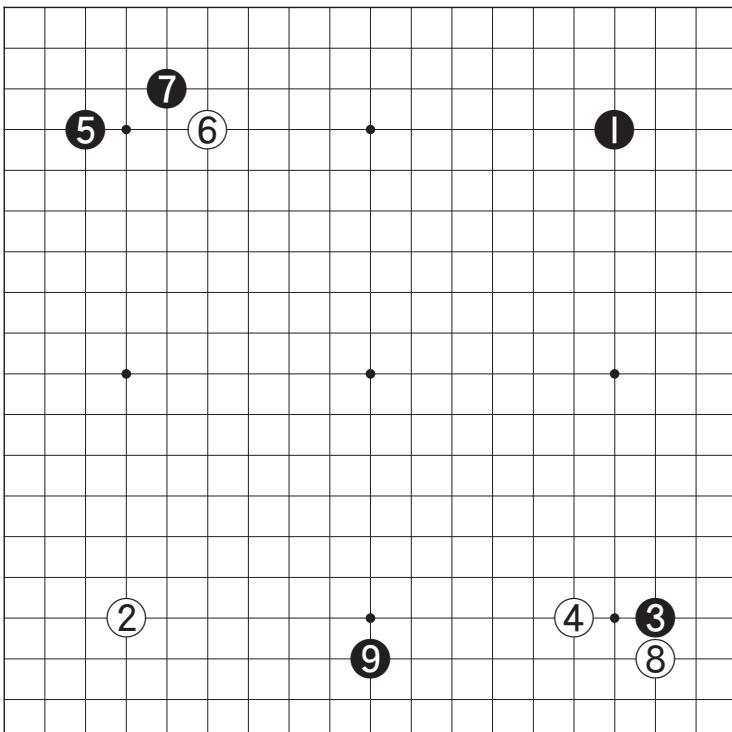
<36>



▲ 지난주 정답

커터칼, 국자, 팽이, 뜻, 열대어, 바늘, 상어, 펜촉, 피라미

(찾) (①) (보) (④) (세) (②) (요) 열대어, 종이배, 고추, 구두, A자, 뜻, 펜촉, 서틀콕, 스폰, 동당연필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비밀대회

패기와 관록의 대결 3회전 1보(1~9)

白 허우석 5단
 <광주광역시청A>

黑 이강민 5단
 <PCA생명>

이번에는 3회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PCA생명의 이강민 5단과 광주시청 허우석 5단의 한 판을 소개한다.

허우석 5단은 이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가장 많이 우승하는 등 지역 직장바둑계의 터줏대감이다. 이번에도 역시 강자들을 연파하고 3회전에 진출하여 또다시 우승컵을 노리고 있다.

이강민 5단은 직장바둑계의 신참. 그러나 전남대 바둑동아리인 '오로회'의 회장 출신답게 탄탄한 기본

기를 바탕으로 처음 참가한 본 대회에서 강호들을 연파하며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신진들의 진출이 됐던 이지역 직장바둑계에도 과연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이 한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돌을 가린 결과 이강민 5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개시되었다. 흑 7에 손을 빼 백 8로 달려간 것이 의외적이며 흑 9 역시 참신한 발상으로 대접 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최상순·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김영순·장성군 장성읍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722>

~ is just around the corner
 ~ 이 곳 가까워지다

A: This department store is so crowded!
 B: I know.
 A: You know why? Chuseok is just around the corner.
 Everybody is out shopping.
 B: No wonder.

A: 백화점이 정말 붐비구나!
 B: 그래
 A: 그 이유를 너 알어? 추석이 임박한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쇼핑하러 나와 있는 거야.
 B: (암~) 당연한거지.

department store : 백화점
 You know why? = Do you know why?
 be out shopping : 쇼핑하러 나와 있다.
 no[little, small] wonder : (그것은) 당연하지, 이상할 것 없어.

오하이오 니혼고 <722>

お刺身(さしみ)なんか、どう?

생선회 같은 것 어때?

A: 最近(さいきん)、こってりした物(もの)(ばかり食べたせいか、食欲(しょくよく)ないんだ。
 B: でも、食(た)べなきゃ、體(からだ)に毒(どく)よ。
 A: そうだなあ。でも何(なに)を食べたらいいか....
 B: ジャ、お刺身(さしみ)なんか、どう? ついでにビールをキュー...。

A: 요즘 진한 것만 먹은 탓인지 식욕이 없어.
 B: 하지만 안 먹으면 몸에 해로워.
 A: 그렇지, 하지만 뭘 먹으면 좋을까?
 B: 그럼 생선회 같은 것 어때? 결들여서 맥주를 짹-.

最近(さいきん) : 최근, 요즘
 こってり : 맛이나 빛깔이 아주짙은모양
 體(からだ)に毒(どく) : 건강에 좋지않다, 몸에해롭다.
 ~~たらいいか : ~~하면좋을까
 ついでに : ~~하는김에

니하오 중국어 <440>

我已經飽了

전 이미 배가 불려요

A: 你吃飽吃点儿什么?
 B: 我已经吃饱了。
 A: 你吃飽吃点儿什么?
 B: 我已经吃饱了。
 A: 你吃飽吃点儿什么?
 B: 我已经吃饱了。
 A: 你吃飽吃点儿什么?
 B: 我已经吃饱了。
 A: 你吃飽吃点儿什么?
 B: 我已经吃饱了。

你吃飽吃点儿什么?
 我已经吃饱了。
 你吃飽吃点儿什么?
 我已经吃饱了。
 你吃飽吃点儿什么?
 我已经吃饱了。
 你吃飽吃点儿什么?
 我已经吃饱了。

<광자이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40>

鳳仙花(봉선화)

봉새 봉, 신선 선, 꽃 화

봉선화(鳳仙花)는 '봉송아'라고도 불리는 꽃으로, 여름철 손톱에 꽂을 들이는 꽃이다.
 봉선화라는 이름은 꽃 모양이 봉황새를 닮았다고 하여 불여진 것이다지만, 이 외에도 금봉화(金鳳花), 봉사꽃이라고도 하고, 눈물 흘리는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누객(旅客)이라고 한다.
 봉선화에는 가슴 아픈 전설이 있다. 봉선이라는 궁녀가 거문고를 잘 타는데, 왕에게 거문고를 들려주기 위하여 아픈 몸을 끌고 거문고를 타다가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다. 왕이 불쌍히 여겨 무명천에 백반을 싸서 동여매어 주었으나 봉선은 얼마 후에 죽었고, 그 무덤가에 붉은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여 죽은 봉선화의 넋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또 노인들은 봉선화로 꽂물을 들이면서 저승길이 밝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조선의 여류시인 허난설헌은 '손가락에 봉선화를 물들이는 노래(染指鳳仙花歌)'라는 한시(漢詩)에서 "나물을 캐니 붉은 호랑나비가 나는 듯하고, 가야금을 타니 복사꽃잎이 흘러내리여"라는 노래를 남기고 있다. 한편, 광주의 봉선동(鳳仙洞)의 동명은 조봉리(烏鳳里)의 봉(鳳)과 이선리(伊仙里)의 선(仙)이 합쳐져서 생겨난 명칭이므로 봉선화와는 관계가 없다.